

# ‘영원한 현역’ 국전 원로작가 한자리에

## 플루티스트 김연주 독주회

초당대 개교 20주년 기념 - 7일 광주문예회관

플루티스트 김연주(초당대 실용음악과 교수) 독주회가 오는 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초당대 개교 20주년과 대학기관 인증평가 획득 기념으로 마련됐다.

레퍼토리는 모차르트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안단테’, 스타미츠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콘체르토 작품 29’, 모차르트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콘체르토 D장조’ 등이다.



조선대를 거쳐 차이코프스키 국립극악원, 소련 국립극악원 등에서 플루트와 지휘를 배운 김씨는 광주시립교향악단 플루트 수석을 역임했으며 19차례 독주회를 열었다.

유진교향악단, 광주 챔버 오케스트라, 전남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로도 활동중이며 1988년 광주 플루트 앙상블을 창단,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피아노 반주는 김소영씨가 맡았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 국전

조규일(82) 화백은 아직도 10번의 고배와 또 10번의 입선, 2번의 특선을 안겨준 ‘국전’(國展·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기만 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스승이었던 오지호 화백의 추천을 받아 진도중에서 미술교사로 14년간 재직했던 조 화백은 1955년부터 국전에 작품을 출품했다.

진도가 다리보 연결되기 전 조 화백은 한 해 동안 준비한 100여 크기의 작품을 합판으로 애지중지 포장해 배 화물로 실어 목포까지 나왔다. 그리고 지게꾼을 불러 목포항에서 목포역까지 이동해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서울에서도 지게꾼을 불러 경복궁까지 이동해 작품을 출품하고 아쉬움과 기대감을 갖고 다시 진도로 내려왔다. 꼬박 일주일이 걸리는 여정이었다.

10일~5월 18일 보성백민미술관 전시회

조규일·박행보 화백 등 80여명 참여

해방 이후 한국 미술계의 등용문 역할을 했던 국전은 작가들에게는 꿈이었다. 정부 주관으로 열린 공모전이라는 상징성과 무게감 때문이었다. 그만큼 국전에서 최고상이나 특선 이상을 받게 되면 화단의 주목을 받았고, 이를 앞에 ‘국전’이라는 훈장이 붙기도 했다. 지역의 대표적 국전 작가로는 의재 허백련, 오지호 화백을 시작으로 아산 조방원, 양인옥, 오승우, 박행보 화백 등이 꼽힌다.

국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부가 미술인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1949년부터 1981년까지 30차례 연 공모전이다. 이어 한국문화예술평화위원회 주관으로 ‘대한민국미술대전’으로 이름을 바꿔 시행됐으며, 1986년부터는 한국미술이 주관하고 있다.

국전 참여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보성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국전작가회(이하 국전작가회)는 오는 6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공분관 1실에서 ‘제3회 대한민국 국전작가회’전을 열고, 이어 오는 10일부터 5월18일까지 보성군립백민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국전작가회는 국전을 통해 배출된 중진 미술인들의 모임으로 지난 2012년 서울과 충남·대전권에서 열린 창립전을 시작으로, 지난해 부산권에서 전시회를 열었으며, 이번에 호남권인 보성에서 전시회를 열게 됐다.

이번 전시에는 모두 77명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참여 작가들은 대부분 60~80대 원로들이지만 ‘영원한 현역’이라는 마음으로 아직도 왕성하게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장리석 화백을 비롯해 허반영, 민복진, 전희진, 전영화, 이운식, 강정안 화백 등 한 시대 미술의 흐름을 일구어낸 80세 이상 원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지역에서는 보성군립백민미술관을 건립한 백민 조규일 화백을 비롯해 김신석, 김충근, 이태길, 김재형, 노의웅, 서봉환, 양용범, 정승주 화백 등이 작품을 선보인다.

조 화백은 “전람회와 미술 공모전의 흥수 속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미술전람회로 위상이 높았던 국전이 그림기만 하다”며 “이번 전시는 국전의 연륜만큼이나 세월과 함께 작화의 경륜도 성숙한 원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1-853-0003.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조규일 작 '봄꽃 소녀'



박행보 작 '마음의 반향'

##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5·6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림책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가 공연된다.

5일(오후2시·4시)과 6일(오전11시·오후2시·4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오랫동안 인기를 얻고 있는 ‘호호 할머니’ 시리즈의 저자 사토 와키코의 원작 동화를 뮤지컬로 옮긴 이 작품은 기발하고 엉뚱한 소재가 유쾌한 웃음을 자아낸다.

뮤지컬의 주인공은 무엇이든 빨기를 좋아하는 엄마다. 그녀는 커튼, 바지 등 집안에 있던 빨래를 모두 해치우고 아이에게 아무거나 빨 것을 찾아오라고 한다. 도깨비 방망이를 찾아다니다 거미줄 같은 빨래줄에 걸리게 된 때묻은 천동반개 도깨비, 엄마는 도깨비까지 빨아버리는데... 문의 1688-3820.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 일곱개 조각의 1만가지 변신

광주박물관, ‘엄마와 함께하는 지혜교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오는 5일 오후 3, 4시와 19일 오후 3, 4시 등 4차례에 걸쳐 ‘엄마와 함께하는 지혜교실’을 진행한다.

이번 지혜교실에서는 ‘칠교놀이’ 도구인 칠교판을 제작하는 시간을 갖는다. 칠교놀이는 정사각형 형태의 판을 일곱 조각내 다양한 형태를 만드는 놀이다.

단 일곱 개의 조각으로 1만여 가지가 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어 ‘교묘한 조각’, 지혜가 길러진다고 해서 ‘지혜판’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박물관 홈페이지(<http://gwangju.museum.go.kr>)를 통해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 062-570-7012.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몸부림의 꽃’ 삶을 관조하다

최향 ‘파꽃 여행’전 7~14일 아트타운 갤러리

시인 안도현은 시 ‘파꽃’에서 “.../ 아, 파꽃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나는 그냥 혼자/ 먼 기차 대가리아, 흰나비 한 마리도 들이받지 말고 천천히 오너라”라고 노래했다.

기차 머리만큼이나 무거운 꽃대를 사뿐 들어올려 피어나는 ‘파꽃’의 계절 봄이 왔다. 흔하디 흔한 파꽃으로 화폭에 파꽃 정원을 꾸민다고 있는 화가 최향씨가 봄을 맞아 파꽃으로 갤러리를 수놓는다.

최씨는 오는 7~14일 아트타운 갤러리에서 ‘파꽃 여행’을 주제로 23번째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작은 크기의 작품 20여점이 전시된다. 파의 대가 평면적인 것과는 상반되게 유희물감으로 도드라지게 표현한 꽃의 입체감이 인상적인 작품들이다.

최씨는 지난 2000년 버스를 타고 남도 들녘을 달리던 중 차창 너머에 있는 파꽃 군락을 만난 이후부터 화려하지는 않지만 생명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파꽃을 작품에 담아오고 있다. 작가는 “초창기 작품에 파꽃이 고통스럽고 힘든 상태에서 피어나려는 몸부림을 담았다면 최근 작품에는 완숙에 들어가 삶을 관조하는 꽃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전시 오픈은 4일 오후 5시. 문의 062-232-714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무각사 신진작가 6명 선정

무각사(주지 청학) 로터스갤러리 신진작가 공모에서 엄기준(30·회화·조선대 졸업), 이세현(30·사진·동신대), 김경란(여·29·설치미술·호남대), 려은(여·34·회화·호남대), 노여운(27·회화·전남대), 이조홍(30·회화 및 영상·조선대)씨가 선정됐다.

무각사는 지역 신진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35세 이하의 작가들을 선정, 전시회를 열고 있다.

선정된 작가들은 오는 6~8월 중에 2주간 로터스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게 된다. 무각사는 전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작가들에게 각각 100만원의 전시지원금을 지원한다.

청학 주지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가의 길에 들어선 신진작가들에게 힘을 주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시작한 일”이라며 “젊은 작가들의 의욕적인 작품 활동이 광주 지역 미술계에 큰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막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형 팀원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http://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http://이파엘지.kr)